

2. 「선거 공약」은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활력소

- 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일 첫 출발점은 바로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일입니다.
-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제시되고 홍보될 때에 비로소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희망을 담은 알찬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은 작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학교를 좀더 가고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멋진 선거 공약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는 필수
 -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널리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등의 질문을 하여 가장 많은 사람의 바람을 공약으로 만듭니다.
 - ※ 학생회장이 중심이 되어 공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구심으로서 힘을 갖게 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한 공약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고, 실현시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학생회 운영 계획과 사업계획을 출마할 때 미리 내도록...

-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약으로 다듬어내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과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 미숙하여 활동계획을 충실히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후보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약과 사업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의 특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선거를 축제로...

- 각 학급을 투표구로 나누어 일시적으로 투표하던 방식을 바꾸어, 일정한 시간 안에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좀더 높이고, 책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투표소 설치에 지역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들이 하루 동안 선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투표함과 기표소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계획은 대략 1교시에 운동장 유세나 방송 유세로 마지막 선거유세를 하고, 2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쉬는

시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3) 당선된 뒤에는 선거공약 실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람과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진영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었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회 지도교사 등 여러 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 학부모 회장과 학부모회 간부님들, 교감·교장선생님, 생활지도부 선생님 등을 만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쭙보아야 합니다.
- ※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반대자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 공약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그들의 염려나 우려,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대의원회와 학급회의 등을 통해 그런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두발 자율화를 하려거든 생활지도부의 보수적인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4) 갖은 방법의 홍보와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이 활성화하고 학생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바람을 실현시키게 되는 만큼, 학생들은 학교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태도와 바른 행동을 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회 간부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 대의원회나 학급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거나 캠페인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방송과 신문이나 대자보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은 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며, 반대자들을 함께 설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5) 학급회 활성화 없이 학생회 활성화는 불가능해

- 40명 안팎의 학급원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학급이라는 공간에는 함께 의논해서 풀어가거나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급회는 바로 학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학급을 민주적으로 꾸러가는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학급회를 통해 전달되어 토의되거나 실천되어야 하며, 학급회에서 제안된 중요한 의제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고 학교 당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전교의 학생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반의 학급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은 학급원들의 의견과 건의

를 적극 수렴하여 대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학생회 차원의 활동이나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학생회비를 걷기도 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지만 모든 학교의 예산 가운데는 학생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은 다양하고 알찬 자치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회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타당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예산 지원에 인색할 학교는 많지 않다.

7)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회와 연계해 활동 폭을 넓히자

- 학생회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 학생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좋다.
-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이 연합해 모이면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 사례를 나누고, 좋은 강사를 모셔 강의를 듣는 등 학생회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른 학교 학생회 간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e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생회 안에 교류협력을 주로 관장할 부서(대외협력부 등)를 만들어 적극적인 교류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 ※ 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의 대표자인 학생회장들이 「전국적인 고등학교학생회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 단체의 총회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수시로 만나 전국적인 학생·청소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볼 만 한 사업들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매력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 하면서 학생회가 감당할 만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이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다음은 학생회가 주도하여 해 볼 만한 사

업들의 예시이다.

1.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학생회 주체로 「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반영한다.
-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 고민, 폭력 피해 등을 조사한다.
- 학생회 명의로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개봉해 건의한다.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배들이 한다. *→ 이거 제일겠지!*

- 3월 초 신입생 입학한 직후에 학생회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3학년 중에서 학급별로 3~4명 씩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 해당 1학년 반에 들어가 학생회 활동, 학교의 전통 등을 소개하고,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3학년 선배들은 학교의 전통이나 학생회 활동을 소개하고, 2학년 선배들은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다.
- 학교에서는 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3월 초의 학급활동(HR)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3. 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학생회」를 운영한다.

-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학생회의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한다.
- 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회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의 운영은 웹페이지 제작을 잘 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운영하게 한다.

4. (가칭) 「좋은 우리학교 만들기」 캠페인 실천 운동을 벌인다.

-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실현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 외에 학생회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바른 수업태도 갖기, 민주적인 생활 태도 갖기, 왕따나 폭력 없애기, 흡연이나 음주 안 하기, 화장실 깨끗이 쓰기 등을 내걸고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학급별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 홍보 방법은 학생회 명의로 플래카드, 학교 신문, 학교 방송, 화장실의 명상카드, 별도의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5. 「좋은 학교 전통 세우기」 운동을 벌인다.

- 학교에서 잘 안 지켜지는 일, 학생들이 꼭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 등을 학교의

전통으로 세워 함께 지켜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 '책상이나 화장실에 낙서가 없는 학교' '입학생은 누구나 좋은 책 200권 읽고 졸업하는 학교', '학교내 폭력이 없는 학교',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학교' 등 참신한 전통을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각종 학교 교육 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교지를 만든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독특한 교육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생한 감동이나, 개선점을 써내도록 공모하는 것이다.
- 수련회, 테마소풍, 진로체험의 날, 학교축제 등 학교의 독특한 교육활동 등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좋은 작품들은 교지 등에 신도록 한다.
- 학생들이 써 낸 감동이나 개선점은 다음 해 행사나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특별 사업을 벌인다.

- 학생회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하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농촌 봉사활동, 무의탁 노인이나 사회시설 봉사활동 등 봉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학생회 이름을 걸고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

8. 즐거운 학교, 건강한 학생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어 간다.

- 학생회가 주최하여 간단한 학급대항 행사나 학교 축제, 각종 문화 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상품 등은 학교 당국에서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한다.
- 학급 대항 발야구나 피구, 길거리 농구 대회, 토요일 동아리 발표 마당(동아리 공연이나 춤 마당), 학교 축제, 토요일 동아리 발표마당 등

■ 「학생회 자치 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시)

지금 학교에서는 매 학년 초에 학생회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학생회장단이 선출된다. 그러나 선출된 학생회장단들이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학생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들도 학생 자치활동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학생회의 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회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성향도 학교마다 다양해서 일관된 학

생회 지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회장단들에게 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학교의 자치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활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청 단위의 중고등 학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최

지역학생회연합회가 꾸려져 있다면, 그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학생회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 학교들이 앞장서는 방법이나,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는 방법, 교육청 차원에서 기획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규모의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는 것일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학교 학생회장단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을 모아 학생회 운영과 자치활동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관내의 많은 학교와 학생회에서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학생회장단들이 학생회 대표로서의 분명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내용,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바람과 요구를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작은 지도자로서 원대한 꿈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잘 해 낸 다른 학교들의 학생회 운영 사례를 함께 나누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예시

- 특강 : '학생 자치활동의 의의와 임원들의 책임',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 특강 :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리더십',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
- 교육 : 학생회 연간 활동 계획 이렇게 세워보자, 학급활동(HR)과 대의원회의 연계 운영은 이렇게
- 교육 : 학생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잘 하려면 - 회의 진행 방법, 안건 발굴과 처리 방법
- 사례 : 학생회가 중심이 된 축제 꾸리기 사례, 두발 복장 자율화 어떻게 할까?
- 사례 : 학생회장 선거 사례, 학생회 집행부서와 운영위원회 꾸리는 법

3. 강사진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진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다년간 학생회를 잘 지도해 왔던 교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전직 학생회장들, 존경받는 명사나 지역사회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청소년 자치활동 전문가, 리크레이션 전문가 등이 초빙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상되는 효과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회 정부회장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길러주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생회간에 활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크게 활성화하게 되고, 상호 교류와 연대를 촉진시켜 건전한 학생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학교안에서의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 씨름을 구성하면 불량 서클이나 불온한 단체인 것으로 생각하여 의심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교육청은 물론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내 동아리들의 발표 마당을 개최하는 등 동아리 육성을 위한 노력이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동아리란? 왜 동아리 활동인가?

- 동아리란 취미나 특기가 비슷한 사람, 장래의 꿈과 희망이 비슷한 사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안의 방송반이나 신문반, 풍물반, 문예반 등이 대표적인 동아리이며, 자동차·자전거·탁구·볼링·댄스 등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어떤 주제로든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동아리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주도하여 구성되었다가 학년말에 흩어지는 특활반과 같이 타율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동아리는 앞 기수 선배들이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음 기수 후배들을 모집하며,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정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계획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 동아리원들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보살피며, 후배는 선배로부터 배우고 존중하는 전통을 가집니다. 동아리원들은 선배 기수로부터 오랜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공유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선 기수보다 더 알차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공동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사회는 많이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활동해 본 경험,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집단사고의 경험, 서로의 견해 차이를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좁히고 함께 활동해 본 경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해 본 경험은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되어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학교 안에서 동아리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떤 동아리를 구성하면 좋을까?

- 책읽기(독서), 봉사 활동, 연극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풍물이나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작활동, 노래부르기, 댄스,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타기, 롤러브레이드 타기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활동들은 동아리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아리 인원은 어느 정도로?

- 한 학년에 5-8명 정도 모여 15-24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적당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3) 간단한 「동아리 활동 계획(초안)」을 만들고 시작해야.

- 동아리 구성 준비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임 주기, 동아리 단합 대회, 봉사활동, 특별한 이벤트, 발표나 전시 계획, 동아리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아리 구성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 초안은 동아리원이 다 모집된 뒤에 창립 총회를

할 때 함께 의논하여 변경시키거나 더욱 알차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4) 좋은 선생님이로 「지도 교사」로 모셔야

-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동아리와 관련이 깊은 과목의 선생님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만한 분을 동아리 지도교사로 모시도록 합니다. 선생님께 왜 동아리를 창립하려 하는지 진심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도교사는 창립 과정에 많은 도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교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5) 사람을 찾아라 : 관심이 비슷하거나 뜻 맞는 사람 찾기

- 동아리 핵심 멤버 찾기 : 동아리를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나 평소에 눈여겨 두었던 후배 가운데 한두 명을 모아 그들과 함께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동아리원 모집 포스터 그리기 : 사람을 찾는 포스터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깔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꾸미도록 합니다.
- 모집 포스터 붙이기 : 모집 포스터는 학교 곳곳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학급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도 구인광고를 위해 적극 이용합시다.
- 학급을 돌며 홍보하기 :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에 학급을 돌면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정성껏 환영하고, 모집 작업을 돕게 합니다.
- ※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집과 홍보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 ※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지원자의 열성과 참여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인원을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적을 때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6) 창립 총회 겸 단합대회 개최하기

- 동아리원 모집이 끝나면 멋진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 총회는 학교(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학교 인근의 떡볶이 집도 좋고, 가까운 곳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회관 안의 적당한 공간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 창립 총회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도록 핵심 멤버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 ※ 창립 총회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지요?
- 핵심 창립 멤버 인사 → 창립 준비 경과 보고 → 창립 회원 자기 소개 및 주소록 교환 → 임원 선출(회장, 부회장, 총무 등) → 사업 계획(초안) 검토 및 좋은 의견 보태기 → 회원이 함께 지킬 활동 규칙 정하기 → 앞으로의 일정 계획 세우기 → 뒤풀이

(7)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 - 클럽활동과 연계되어 활동함

- 동아리를 창립한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아리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친해

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으로 대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 친근하게 만나다 보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동아리원들끼리 친해지기만 하면, 좀더 신나는 활동거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거나 소박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함께 할 수도 있겠지요?

※ 동아리 활동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클럽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클럽활동 시간에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클럽활동이 없는 날에는 동아리원들이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모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아리 활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려면

- 동아리 창립 초기에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좀더 폭넓은 만남과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 수련회나 단합대회 개최하기

- 동아리원들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적당한 곳으로 수련회(야유회,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려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필요한 준비물을 나누어 맡으며 지도 교사께 특별히 부탁하여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 동아리와의 만나고 교류하기

-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의 비슷한 동아리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와 같은 취지로 활동중인 다른 학교의 동아리원들과 만나며 경험을 나누는 일은 동아리 활동을 더욱 신나게 해줄 것입니다. 한번 쯤 특활이 있는 날 대학생 동아리를 찾아가 탐방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 학교의 같은 동아리가 함께 하는 「동아리의 날」 행사를 열자

-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 동아리 만남과 교류의 장

학교에는 방송반, 신문반, 문예반, 연극반, 독서반, 합창반, 관현악반, 댄스반 등 상설 동아리(또는 잘 운영되는 클럽 활동반)들이 있으며, 이들 동아리들은 그나마 미미하게나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가꾸는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동아리들이 다른 학교 유사 동아리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거나 좀더 발전적인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동아리의 날」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관내 다른 학교의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좀더 발전적인 활동 방안을 함

게 모색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동아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그런 동아리에 관심이 있거나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프로그램 운영

우선 매주 특정 요일(예컨대 목요일이나 토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특정한 동아리 구성원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매월 목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고, 3월 3째 주 목요일은 「방송 동아리의 날」, 4째주는 「신문 동아리의 날」, 5월 첫째 주는 「독서 동아리의 날」, 5월 둘째주는 「연극동아리의 날」 등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할 수 있다면 이 날은 해당 동아리의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가 아닌 청소년수련관으로 등교하여 오후 시간까지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2. 추진체의 구성

「동아리의 날」 행사를 좀더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교별 해당 동아리 대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 가운데 희망자로 「○○동아리의 날 행사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준비위원회는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사 계획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조직하게 된다.

3. 행사 내용

행사 내용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줄 특별한 교육, 관련된 문화예술인이거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의미 있는 이벤트, 동아리 활동 체험담 및 사례 발표, 동아리 선배로부터 듣는 경험담 등의 내용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각 동아리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우 특색 있고 개성 있게 짜도록 한다. 문예반이나 문학동아리의 날이라면 「독후감 발표회」, 「시 낭송하기」, 「작가와 대화」, 「시화 전시회」, 「문학 동아리 활동 사례」 「시·소설 창작법」, 「문학을 전공한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동아리의 날」이라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예시

- 교육 : 학교 방송의 의미와 방송반원들의 역할과 책임
- 초청 강연 : '유명 방송인(PD, 아나운서 등)에게 듣는 방송이야기', '정보 기술의 발달과 방송의 미래' 등
- 방송반 운영 사례 : 「학교방송국」, 사례,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방송제 사례
- 방송 기술 배우기 : 음악 방송을 잘하는 법, 비디오 촬영 및 편집 방법
- 방송국 탐방 활동 : ○○ 학교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
- 방송 동아리 친교 한마당 : 방송극 공연, ○○ 학교 방송제 작품 시청, 장기자랑, 친교

「동아리의 날」 프로그램은 매 주 한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동아리별로 위에서 언급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수련관 조울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행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리의 날」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자연스럽게 관내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사들은 청소년회관을 통해 만남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동아리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고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참여를 부추기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동아리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학교 동아리들 간에 교류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동아리 연합」으로 발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지역 사회 청소년 문화가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다.

○ 동아리 전시회나 발표회 개최하기

- 학교 축제나 지역 축제 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동아리의 작품이나 활동상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꼭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동아리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또는 사이버 동호회에서 정보 자료 얻기

- 인터넷에서 동아리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으면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속에서 동아리와 관련이 있는 동호인 모임을 찾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동아리 활동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학 동아리의 경우 인터넷 서점이나 독서 클럽, 문인관련 사이트 등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 동아리의 경우 신문사나 기자협회, 언론노조 홈페이지 등

○ 외국의 학교에 있는 비슷한 청소년 동아리들과 교류하기

- 수년 동안 활동하여 전통이 세워진 동아리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생들과 동아리 차원의 교류를 해 볼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통신이 발달한 요즘에는 특히 외국 학교의 동아리들과 메일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활동 프로그램 내용들을 나눌 수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서로 교환 방문하는 행사를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외국 동아리들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좀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참고 / 인터넷 속의 청소년 동아리

□ 하늘사랑

- 코스프레 동아리/ 만화 캐릭터 분장 클럽
- Fantasy World/ 판타지 문학을 애호하는 클럽
- 스쿨피온 브레이크인/ 테크노·힙합 댄스 애호 동호회
- ★프리펌★펌프동아리★/ 'Pump it up'이란 게임을 즐기는 클럽

□ 프리챌

- 서현고 봉사동아리 한마음/ 봉사활동 동호회/ freechal.com/hme
- 신도고 봉사부 DLS/ 봉사활동 동호회/ freechal.com/dls
- 해리포터 팬클럽/ 해리포터 문학동호회/ freechal.com/hogwart2

□ 다음카페

- 버스매니아/ 버스여행자클럽/ cafe.daum.net/busmania
- 드럼배우고싶은사람 모두 모디/ 드럼 동호회/ cafe.daum.net/drumlesson
- 아름다운 시와의 만남/ 문학동호회/ cafe.daum.net/withbony

□ 라이코스코리아

- 앳! 영어다/ 입시대비 영어공부 동호회
- 잡동사니자료만땅/ 캐릭터, 아이콘, 태그 등 자료수집클럽
- 스키·스노보드 동호회/ 스키·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희망의 미래를 일구는 「사회참여 활동」

1. 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인가?

- 21세기, 우리는 21세기가 개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희망의 세기가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력과 불의가 힘을 못쓰는 사회, 억압과 차별·독점과 가난이 없이 함께 나누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가정과 사회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조차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힘겹게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제적으로는 사랑과 공존보다는 힘과 자본(돈)의 논리가 국가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폭력·차별·마약 등 20세기의 못된 유산들이 여전히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소수 강대국의 횡포와 국가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이 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와 인류 위에 드리워진 시작한 21세기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를 만들어 가야 할 주역은 바로 지금의 중고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어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꿈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 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 그런 청소년들이 보내는 일상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공부만을 제일로 여기며 시험 부담에 가위 눌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희망의 21세기를 이끌 원대한 꿈을 키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의 교실과 자기 방, 책상 위와 가두어져 있는 시야를 좀더 넓히고, 우리 사회와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고통에 따스한 눈길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만을 추구하거나, 요란스런 쇼 프로그램이 게임과 오락이 주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눈과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은 좀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2.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

※ 학교 안의 학급회나 학생회, 동아리 차원에서 또는 학교 밖 동아리나 단체 차원에서 함께 해볼 만 한 프로그램들임.

1) 「우리는 사회 복지사」 - 사랑과 나눔을 배우는 봉사활동

-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 일정 수의 청소년들이 복지 지원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임.
-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복지행정관청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특별한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며 매주 또는 격주로 찾아가 보는 활동

2) 「자연과 환경보호, 청소년에게 맡겨 주세요」

-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 「공해 물질 배출업소 감시단」, 「푸름이 나무심기 봉사단」,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모임」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함.
-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교, 관공서 등은 청소년 동아리원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학생수가 너무 많아요」 -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 정부나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를 좀더 가고싶고 공부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운동이며, 교육 환경이나 여건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신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교복값이 너무 비싸요」 라면서 교복시장의 모순을 고발하고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캠페인, 「우리도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며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운동 등이 가능할 것임

4) 「웅달샘 청소년 동아리」 -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운동

- 자신들의 생활권 안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유해 업소를 찾아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는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흥 업소,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 학교 인근의 향락업소 등이 있으면 고발하고,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보내기

- 행정구청이나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보호해야 함.

5) 「청소년 NGO의 힘」 - 지역 사회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단체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해보거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시민단체의 종류와 활동 알기, 가장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 가입하기, 지역사회 의 현안 문제 조사하기,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과 탐구 및 활동 프로젝트로 제시하여 진행하되, 혼자서 보다는 몇 명이 팀이 되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아름다운 우리 문화 가꾸기」 운동

-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유입, 상업주의적인 대중 문화의 횡행으로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서는 운동으로, 국수주의적인 문화의 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외래 문화와 조화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의 운동임
-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캠페인」, 「우리 전통 문화 바로 알기 탐구 활동」, 「남북이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우리문화 탐구」, 「무엇이 우리말글을 더럽히는가」 등의 다양한 테마를 내걸고 학생회 차원에서 또는 관심 있는 동아리 단위로 벌일 수 있을 것임

7)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 - 청소년들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 자치

- 지역사회의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동아리, 학생회장단 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시·군·구청이나 의회 등에 요구하여 청소년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자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임
- 「내가 시장(군수)이라면」, 「이 곳을 살펴주세요」,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보내는 신문고」, 「세살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메뉴를 개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해야함.
- 지방 자치단체나 의회에서는 운동을 추진하는 동아리들이 시군구청이나 의회를 견학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참신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엄마 아빠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 이혼 반대 캠페인

-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 버려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제기하며, 이혼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어른 세계에 경종을 주는 운동.
-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사회에 환기를 시키고, 일정 장소를 정해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것임.
 청소년들의 이혼반대 캠페인은 기성세대에게 자극을 주게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엄마·아빠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결혼관이나 이혼에 대한 의식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임.

9) 「청소년이 평가하는 텔레비전과 신문」 - 매스컴 프로그램 모니터

- 청소년 동아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모니터하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비평한 글이나 의견을 지면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운동임.
-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든 텔레비전 문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신문 등 매스컴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비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시청자 모니터링의 시각지대라고 할 만 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시청자들의 감시에 의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운동 단체나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나 대학생, 언론사 기자, 언론노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10) 「밭은 한국 땅에 눈은 세계로」 - 국제적인 연대로 시야 넓히기

- 청소년들이 자기 집과 학교,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인류에 대한 관심과 세계를 보는 큰 눈과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테러 반대, 전쟁반대 메일보내기', '전쟁과 폭력·인종차별 반대',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 '북한 어린이 돕기' '유니세프 아동 돕기 모금' 등을 운동으로 전개함.
- 국제적인 연대 운동은 학교간 연대, 동아리간 연대, NGO연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과 교류도 시도해볼 만 함.

11) 「아무진 청소년, 똑똑한 시민」 - 인터넷, 매스컴에 의견 제시하기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당면 현안이나 심각한 사회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사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운동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의회, 신문·방송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자유게시판이나 시민의 소리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개함.
- 숨겨진 선행이나 미담 소개, 잘못된 정치사회 현실 비판, 부정이나 비리 고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올릴 수 있을 것임.

12)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 청소년 인권운동

- 우리 사회의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정부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구를 상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보호·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
- 인권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 여론화 시키는 운동으로, 청소년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는 물론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운동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참고 자료

미국 감동시킨 동포청년의 '박애'

재미동포 대니 서(21)의 이야기를 (워싱턴포스트)가 31일 라이프 스타일 섹션의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본받을 만한 차세대 박애주의자로 극찬하고 서씨의 활동내용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은 서씨가 12살 때 '지구 살리기' 단체를 설립해 현재 회원이 2만 명에 달하며, '박애의 집'을 만들기 위해 혼자 힘으로 3만 달러를 모은 일화 등 서씨의 인류애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신문은 또한 서씨가 펴낸 책 '지상의 천국'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 서점에서 6만 권이 팔려나갔고 1만3천명이 예약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로 이민 온 재미동포 1세대의 2남 1녀 중 막내아들로 고교만 졸업한 평범했던 서씨가 미국 언론의 관심의 인물로 부각된 것은 지난해 '오프라 윈프리쇼' 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감동적인 활동을 소개한 데서 비롯됐다. 서씨는 '박애의 집'을 세우기 위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10달러씩 기증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건물주들에게 분수대에 던져진 동전을 기증하도록 했으며, 의류업체에선 티셔츠를 기증 받아 도매판보다 싸게 팔았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건립된 박애의 집에 아기가 딸린 한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다. 또 환경잡지에 실리는 동물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서씨의 칼럼들은 독자들의 커다란 공감울 사고 있다. 윈프리쇼가 방송된 뒤 서씨에게 1천여 통의 전자메일이 쏟아졌고, 30차례의 연설과 방송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잡지 (피플)은 지난해 서씨를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서씨의 새로운 계획은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과 자활을 돕는 웹사이트(Heaven)를 만들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다. 하성봉 기자/한겨레 1999/08/31

'푸른이 동아리모임'의 푸른 세상 만들기

30개교교 이웃돕기. 자원 봉사 활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노태원(서울 신일고 3년)군은 고교 1학년 때까지 만 해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공부엔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30여일 앞둔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선 같은 반 45명 가운데 7등으로 뛰어올랐다.

무엇이 태원이를 뒤늦게 철들게 한 것일까?

'푸른이 동아리연합모임'(회장 배명욱 신일고 2년)이란 게 있다. 서울·경기지역 30개 고교 40여 개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문화공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일종의 청소년 엔지오(비정부기구 시민운동단체)다. 지난해 이 모임의 봉사부장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다는 태원이는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선배들로부터 구전되어온 '푸른이' 모임의 탄생 비화는 이렇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해요. 당시엔 청소년 자살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죠. 보다 못한 고교생 7명이 알음알음으로 뜻을 모았어요. 건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취지였죠."

처음엔 동네 교회에 모여 동네 어른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시를 낭송하거나 아카펠라(무반주 노래) 또는 복음성가(고스펠송)를 불렀다.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뽑고 정기적인 문화공연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97년부터다. 수재민돕기와 불우 이웃돕기를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가 하면, 지난해엔 공연 표를 팔아 '실업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게 모인 30만~40만원을 기탁하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사는 학생들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난생 처음 느끼는 기쁨에 벅찬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졸업한 선배들의 자리를 후배들이 채우며 3000여명의 학생들이 '푸른이'를 거쳐갔다. 졸업한 선배들이 이번엔 '이꿈이'(지도자) 모임을 만들어 후배들을 재정적·정신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뜻을 높이 산 '괜찮은' 어른들이 이꿈이에 참여한 것도 그때쯤이다.

지난 7월 서울 대학로 거리문화축제 댄 이동우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원이 허름한 길거리 공연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첼로를 잡았고, 전미영 한국교원대 음대 교수도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인 전무용씨와 장대현 협성대 교수(기독교 교육학), 이용환 노원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장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노릇을 자임했다.

'푸른이' 아이들은 올해 또 하나의 뜻깊은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한국' 만들기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푸른이 차치모임별로 '아름지기(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문종윤(서울 경성고 2년)군은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거리청소에 나서고, 남기오(서울 보성고 2년)군 등은 대학로 일대에서 주말마다 빈 알루미늄 깡통을 모았다. 오는 16일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푸른이 회원들로 구성된 '아름지기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정식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선 월드컵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10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된다.

"빈 깡통을 모아 판 돈으로 1인용 길거리 청소차(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월드컵 때 주요 행사장을 돌며 깨끗한 거리로 꾸밀 생각이에요. 서울은 우리의 얼굴이니까요."(이주영, 서울 신일고 3년)

'청소년 관광 엑스포'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 '푸른이'들의 푸른세상을 위한 꿈은 11월 중순 문을 열 인터넷 홈페이지(<http://greenpia.org>)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황석연 기자 / 한겨레신문

"제인 리는 20년후 미 첫 여성대통령감"

미국 그라나다 힐스 고교 3학년생인 한인 제인 리(18)양이 캘리포니아주 하원 제 40지구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Woman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지역신문인 데일리 뉴스는 20일 이 지역구 출신인 밥 허츠버그주 하원 의장(민주)이 최근 이양을 국회의사당으로 초청, 시상하면서 "제인은 시장이 될 수 있고 언젠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양의 친구인 옥수기(18)양은 "제인은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미국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서북부 샌퍼낸도밸리와 스튜디오시티 등이 포함된 제 40지구는 이양이 학교에 학생들이 버린 종이와 음료수 깡통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집짓기 운동에 앞장선 점 등을 인정, '올해의 여성'으로 주저 없이 뽑았다.

재활용 법안은 허츠버그 의장이 정식제출, 의회를 통과한 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전달됐으나 데이비스 지사는 300만 달러의 예산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수상자들이 30-40대라는 점에서 이양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됐다.

허츠버그 의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만 제인은 좀 특별하다"며 "나이는 상관없다. 주 전체를 통틀어 믿기 어려운 재능을 가진 학생"이라고 평했다.

지난 74년 가족과 함께 이민온 이양은 학업성적이 평점 4.2로 수석졸업의 영예와 함께 졸업생 대표로 고별연설을 하며 전액 장학금으로 일리노이주 명문 사립 노스웨스턴대 정치학과에 진학한다. 이양은 학생회장, 학교대표팀 치어리더, 방과후 어린이 지도교사 등으로 교내활동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가해왔다.

이양은 저소득층 무료 집 제공 기관(Habitat for Humanity)의 지부를 옥양과 함께 설립, 모금운동을 펼치는가하면 LA통합교육위원회에 참석, 학생문제에 관해 자주 의견을 개진했다.

이양이 받은 젊은 지도자상과 우등상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최우수 고교생 중 한 명(Who's who Among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에 선정되기도 했다.

허츠버그 의장은 "얼마나 많은 고교생이 그 나이에 비영리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법안을 만들어 주지사 책상 앞에까지 갖다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제인은 언젠가 이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바우어 교장은 "제인의 경력은 어떤 학생들보다도 아주 인상적"이라며 "18살의 나이에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롭다"고 밝혔다.

비타민 판매가게를 운영하는 이각균씨의 두 딸 중 막내인 이양은 "부모님은 항상 내 생활의 전형"이라며 "가게의 성장을 통해 열심히 하고 인내하면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여중생들의 '고운모래지킴이'

강원도 동해시 묵호여자중학교 환경지킴이 학생들은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이번 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이 학교 1,2,3학년 40여명으로 구성된 망상해수욕장 환경지킴이 학생들은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7월 20일 이후 매주 주말, 휴일이면 망상해수욕장을 찾아 쓰레기를 줍고 있다. 곱고 깨끗한 모래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망상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 '고운 모래 지킴이'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쓰레기 천지로 변한 백사장에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2~3시간 가량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모래사장을 실천하고 있다. 피서 절정기 쓰레기천지였던 백사장, 야영장 주변은 물론 악취 나는 음식물 쓰레기에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분리수거에 열중이다.

2~3시간의 쓰레기 줍기에도 한 사람당 쓰레기 봉투 2~3개를 채우는 것은 아주 쉽다. 이들은 망상해수욕장 정화작업을 벌이고 시간이 남으면 천곡동 냉천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간다.

봉사동아리 강유리(16.3학년)양은 "피서절정기인 이달 초에는 정말 쓰레기 천지였다"며 "힘들기보다는 백사장을 내 집처럼 아끼는 피서객들의 의식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묵호여자중학교 환경부장 김영삼 교사는 "학생들을 따라 몇 번 청소해 나섰는데 정말로 뜨거운 퇴약벌 아래서 땀흘리며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장애인을 돕는 건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복지관에서 한 오빠를 만났다. 정신지체장애인이었다. 스무살인데도 그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뭐든지 어긋났다. 동물을 그리라고 하면 기차를 그렸다.

류혜란(16·서울 백암고2)양은 서울 신목복지관이 지난 겨울에 연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학교'에서 그 오빠를 만났다. 이 학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지하철 타기 등 장애인이 현장학습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줘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류양은 그 오빠를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삐딱하게 행동해도 이해를 하려고 애썼다. 외면해도 계속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렇게 한달이 갔다. 수료식 날, 그 오빠가 슬며시 다가가 쪽지를 건네줬다. "말씀부려 미안하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고맙다." 류양은 그때 눈자위가 붉어졌다고 한다.

류양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 시쳇말로 '대학가기 위한 점수를 따놓으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을 지니고 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단지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가는 한 과정이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순수한 사람들을 댁아가려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올해 참 바빴다. 자원봉사는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모임을 만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갔어요. 지치고 힘들고 싫증이 나 그만두곤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학년에 진급하자마자 학교 안에 '빛과 소금'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28명이 모였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우유를 배달하고, 정신지체장애인 취업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

"자원봉사는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되요. 꾸준히 해야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뛰어넘어 꾸준히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모았다. 인터넷 등에 함께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모집했다. 18명으로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려 120명이 지원을 했다. 면접을 통해 회원들을 뽑았다. 지난 8월 '다솜바리'라는 동아리를 결성했다.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더 바쁠 것 같다. 11월에는 자선공연을 준비중이다. 빛과 소금은 '장애인을 이해합시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할 계획이고, 다솜바리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을 준비중이다. "겨울이 오잖아요. 다들 춥고 힘들 때 한번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뜻이지요."

류양은 소중히 키우는 꿈이 있다. 특수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꿈이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풋하게 그린 꿈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었다. 모두가 짝이 되길 싫어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짝이 되도록 했다. 그 친구와 가장 오래 짝을 한 아이가

류양이었다. 류양이 똑같이 대했기 때문이다. “또래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고 ‘무섭지 않느냐고 했지요. 하지만 만나 보니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스스럼없이 만났다.

류양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서기 쉽지 않음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지만, 류양은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둘러보면 풍족해졌는데, 다른 사람은 돕는 마음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일인데...” 참 ‘넓은’ 아이다.

강석운 기자 / 한겨레신문

참고자료 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2005. 12. 3

(서울시)

참고자료 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회관 현황 / 자료 출처 서울시

■ 「보라매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보라매청소년수련관내 큰나무동 2층

○ 개관일시 : 2000. 10. 20

○ 주요시설 : 사이버극장, 인터넷정보검색실, 인터넷방송국, 노래방(D.D.K), 비디오게임, 시청각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A,B, 영화감상실, 아마추어무선, 다목적홀 등 13개 시설

○ 운영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 ~ 오후 9시

- 공휴일(토~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이용안내 : 834-6414

■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 명칭 :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 별칭 : "미지" (MIZY : Myoungdong InfoZone of Youth), 미지의 세계, 즉 알지 못하는 그러나 궁금한 것에 대한 접근과 상징

○ 위치 : 중구 명동2가 50-14(유네스코회관 2층)

○ 면적 : 332평 (2층 전부)

○ 개관일시 : 2000. 5. 27

○ 운영 프로그램

- 인터넷 카페 : 한국 및 서울에 대한 정보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 및 활동 정보제공, 문화활동, 국제교류활동, 소모임 프로그램 등

- 분야별 프로그램 : 청소년 인권센터, 동아리 활동지원센터, 열린 사람들센터, 문화산업공간(영상/패션 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 이용방법 : 청소년 누구나 이용가능 (개인 또는 동아리)

○ 이용안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755-9068), 서울시 체육청소년과(3707-9407~8)

■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 시설현황

- 소재지 : 용산구 갈월동 101-5

- 규모 : 대지 529㎡, 건물 1,343㎡ (지하 1층, 지상 4층)

- 수탁자 : (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99. 7. 1 ~ 2002. 6. 30)

- 개관일 : 2000. 2. 24

○ 시설별 주요 프로그램

층별	시설명	주요장비	주요 프로그램
1층	인터넷 플라자I	컴퓨터 25대	인터넷 게임, 스캔, CD녹음 오디오, 비디오 감상 만화, 컴퓨터, 영화 관련 잡지 멀티미디어 자료실
2층	업무시설 및 인터넷플라자II	컴퓨터 25대, TV, VTR	1층 인터넷 기능 컴퓨터 교육강좌 인터넷 방송 전문교육
3층	다목적홀	TV, VTR, 오디오	공연시설, 갤러리, 전시 영화, 비디오 감상실
	사진교육실 및 암실	사진장비	사진교육 강의실 사진현상실
	인권상담실	컴퓨터, 전화	청소년 인권상담
	디지털 편집실	방송편집용컴퓨터, TV, VTR	청소년 제작 6mm비디오카메라 편집
	만화 작업실	만화 편집용 특수책상 6개	만화그리기, 만화동아리 활동 만화제작 실습
4층	문화 공작소	공구 및 재료	각종 소품 제작 공연기획
	노천극장	무대시설	육상공연 시설
5층	방송스튜디오	방송기자재	인터넷 방송 제작 및 송출

○ 전화번호 : 795-8000

■ 서울유스테크

○ 주요 프로그램

- 전문 VJ활용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 인근학교 등과 연계하여 집단이용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입장료는 무료, 콜라 등 실비 판매

<방학기간 중>

- 새로운 청소년 문화운동 또는 청소년들의 파티장으로 제공
- 노예팅 등 10대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하고 청소년 DJ프로젝트, 문화기획단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선생님과 함께 하기 풍파티 등

<학기 중>

-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특별활동시 프로그램 기획, 진행 등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로 운영
- 졸업파티 등 프로그램 제공, 전문 VJ활용 등을 통한 행사 주선
- 선생님과 함께하기, 새로운 학년 및 반편성으로 헤어지게 되는 선생님 및 친구들과 유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스테크에서 파티 주선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애칭)	설치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전화 번호
		위치	면적				
노원청소년 수련관 (노원구 상계6동 772)	'99.12.21 (N space)	1층 체육관	191평	목/금 토 일 평일	19시~22시 18시~22시 15시~22시 인근학교와 연계	300	3391-4141 (교 101)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 918)	'99.12.18 (와와 유스테크)	1층 체육관	210평	화~토 평일	17시~22시 인근학교와 연계	300	2646-6819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동작구 신대방동 396)	'99.12.23 (보라매 유스테크)	큰나무동 1층 풍물연습 장	60평	매일	16시~22시	100	834-6414
수서청소년 수련관 (강남구 수서동 749)	'99.12.18 (Happy Happy 클럽)	1층 체육관	256평	금 토 일	20시30~22시 19시~21시30 13시30 ~15시30	300	2226-3611
중랑청소년 수련관 (중랑구 면목4동 산 78-5)	'99.12.13 (N space)	1층 강당	93평	목/금 토/일 평일	17시~22시 인근학교와 연계	200	490-0215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 7가 57)	'99.12.23	2층 강당	77평	금/토/일	18시~22시	200	677-9400
YWCA (성동구 금호동 3가 1266)	'99.12.23 (Y-유스테크)	2층체육실	82평	화/목/토(방학중)	17시~21시	100	2236-2678
YMCA본부 (종로구 종로2가 9)	'99.12.23(충 추리 클럽)	2층 강당	120평	금/토 계기일	17시~21시	300	734-3934
YMCA강남지회(강 남구 논현동 225-6)	2000.1.13(파 워댄스클럽)	4층 강당	120평	금/토 계기일	17시~21시	300	734-3934
강남구유스테크(강 남구 신사동 583)	2000.5.19	지하	180평	평일 토요일 일요일	15시~22시 13시~22시 10시~22시	300	3444-5808

■ 시립청소년 수련시설(위탁)

○ 주요 프로그램 : 청소년상담·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예능교실, 교양문화교실, 취미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실, 에어로빅, 헬스, 수영 등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m ²)		이용 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용산구 갈월동 105-1	위탁	529	1,343	800	793-2000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57	위탁	9,697	2,833	1500	677-9200
-	청소년 성문화센터	-	-	9,697	684	200	677-9230
-	중앙 청소년수련관	중앙구면목동 산 78-5	-	13,260	20,054	500	490-0214
-	수서 청소년수련관	강남구 수서동749	(사회) 상회원	8,260	6,381	2,000	2226-3611
-	목동 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 918	(재)대한불교조계종	5,744	5,765	980	646-6819
-	문래 청소년수련관	영등포구 문래동 73	(재)기독교청년회	2,314	4,306	750	675-7776
-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동작구 신대방동 396	(재)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5,088	10,482	1,000	834-6412
-	서울 청소년수련관	중구 수표동 27-2	(사)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980	6,897	1,200	2267-2914
-	노원 청소년수련관	노원구 상계동 772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	3,960	7,132	1,000	3391-4141
-	근로 청소년복지관	광명시 하안동 740	(사)한국청소년연맹	70,868	25,967	1,000	685-4944
-	강북 청소년 수련관	강북구 수유동 산20-9	(재)대화문화아카데미	2,060	1,647	1,050	900-6650 ~1

■ 구립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m ²)		이용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강남 청소년회관	강남구 청담동 66-2	서울 YWCA	2,277	1,911	325	548-6412
"	강서 청소년회관	강서구 내발산동 산4-5	홍사단	3,340	1,607	400	600-6490
"	강동 청소년회관	강동구 명일동 327-6	한국 청소년연맹	1,110	3,740	700	478-6212
"	관악 청소년회관	관악구 신림동 1521	온터두레	1,944	4,941	780	876-0636
수련실	월계 청소년수련실	노원구 월계동 411-55	대한가족 계획협회	439	843	300	919-1857
"	사당 청소년회관	동작구 사당동 산24-17	한국청소년 행동과학 문화원	918	918	300	595-0231
"	연희 청소년회관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서울 YWCA	1,342	845	300	338-4537
"	종로 청소년수련실	종로구 명륜3가 1-1042	종로구직영	313	789	200	731-0490
"	성동 청소년수련실	성동구 금호3가 1266	서울 YWCA	1,382	1,382	500	2236-2678

■ 사립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m ²)		이용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살레시오 교육회관	양천구 신월동 195-1	(주)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14,245	3,248	200	691-6543
수련실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영등포구 신길동 441		20,034	1,467	110	833-4010

■ 청소년 종합상담실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화번호	비고
청소년 종합상담실	중구 수표동 27-2 (서울청소년수련관내)	(사)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건물 265m ²	2285-1318	

■ 가출청소년 쉼터

구분	구로지역 청소년 쉼터	신림지역 청소년 쉼터
소재지	금천구 가산동 345-58 근로복지공단(162평)	관악구 신림동 1428-12 상가5층 (150평)
대상	여성	남성
수용정원	30명	20명
운영단체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전화번호	3281-8200	876-7942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재지	기능	개원일	전화번호	교통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한국청소년 연맹회관 내	· 청소년 자원봉사 에 관한 전문적, 체계적인 정보제 공	1999. 5. 26	849-0404~5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도보 10분 ·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대방역 하차 버스(107, 98, 101, 124, 70, 54, 104, 137) 이용

참고자료 3

학교폭력대책 관련보고

2005. 12. 3

(교육부)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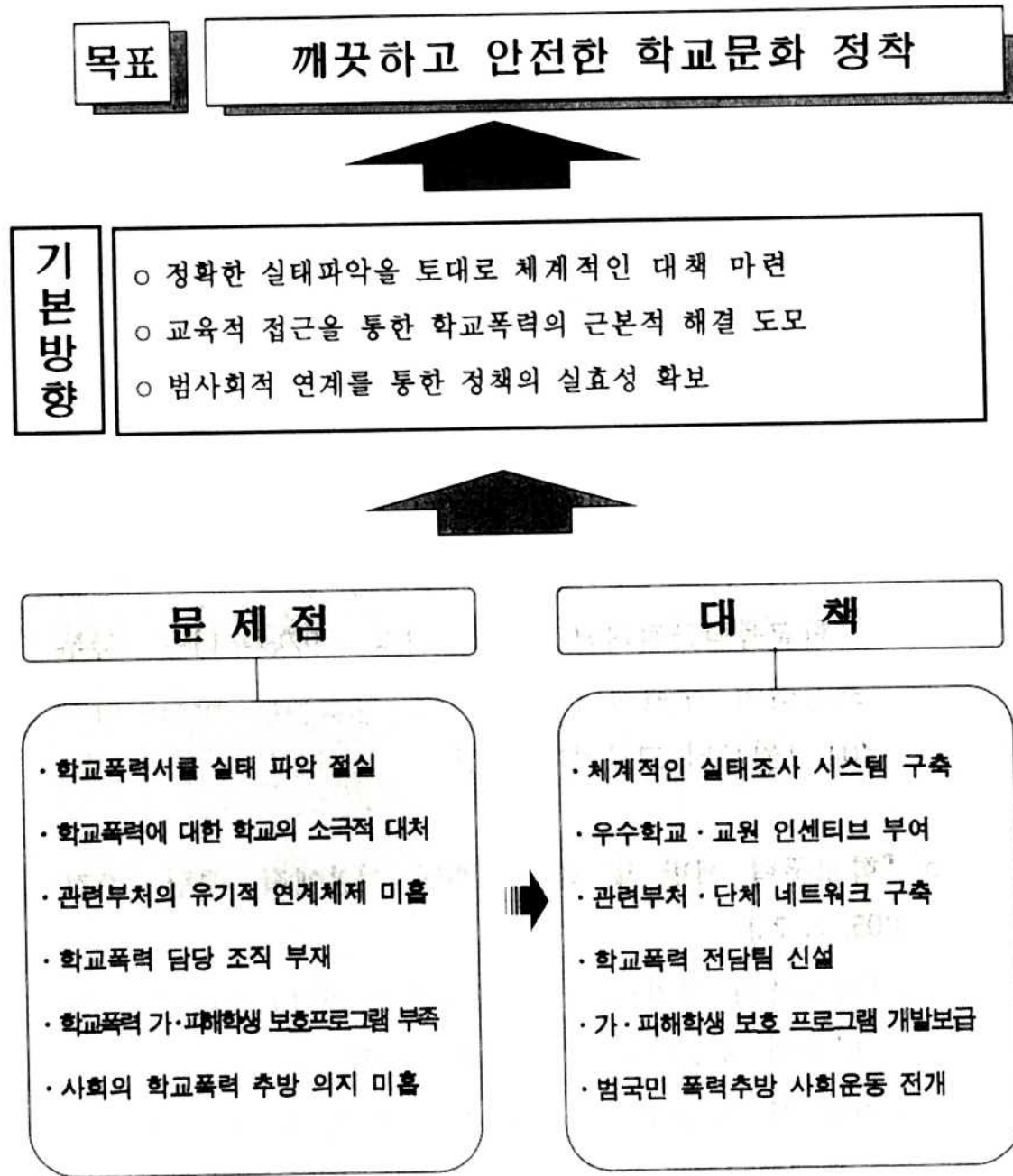
- 일부 학교폭력의 조직화·흉포화 등으로 사회의 불안감 상존
- 현재, 관련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최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 청소년 폭력조직 '일진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해체 시급

2. 추진경과

- '95년부터 교육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 수립·시행, '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다가 '04. 1월부터 교육부가 주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05. 2. 2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5개 관련부처 공동담화문 발표('05. 3. 4)
 -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05. 3. 11)
 - 학교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지도 촉구

- 각급학교별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05. 3. 14)

3.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 대책

가. 범정부 합동 학교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해체

- 「실태조사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로 구성
 - 실태조사 내용, 대상, 방법 등을 협의
 -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경찰청과 협조)
 -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한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지도
- 「자진신고기간」의 효율적인 운영
 -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우수 학교·교원에 인센티브 부여
 - 학교 및 교원의 동참 유도로 학교폭력서클 실태 파악 도모
 - 표창, 국외연수, 연구학교 지정 등 우대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대상 다양한 신고방법 홍보
 - 플래카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반상회 자료 등 활용
 - 각 부처 및 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정비
 - ※ 자진신고번호 : 112 또는 지역경찰서국번+0118
- 학교폭력서클 해체 및 교육적 선처
 - 자진신고자에 대한 교육적 선처
 - ※ 본인·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치료, 특별교육이수, 전학 및 학급교체
 - 미신고자 적발시 의법 처리
 - ※ 형법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적용

나.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교육부 소관)

교육부

-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 구축
 - 공동으로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추진
 -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고등학생용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05. 12)
* 중학교용('03), 초등학교용('04) 개발·보급
 -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보호프로그램 개발·보급('05. 12)
-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전담부서」 신설·운영
 - 전담부서 신설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근절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NGO·교직단체·학부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예방·치료 전문교원 양성 및 배치
 -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 관련 과정 개설·운영
 - '09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추진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학교폭력 추방 계도활동 전개
 - 無價紙, 교육전문지, 라디오 등 공익광고 활용

시·도교육청

-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학생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원, 전문의료기관 등 활용
 - 대안교실 운영 등 가해학생 선도교육기관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성·운영
 - 교육청별 법조계, 의료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별 순회 교육, 교원연수 등에 활용
-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05, 106개교)
- 전 교원의 상담능력 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교원과 학교 우대
 - * 인사, 전보, 국외연수 등 다양한 우대 방안 강구

단위 학교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05.3.24~25)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실천 등 협의
 - * 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
 - 건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놀이문화 활성화, 독서환경 조성 등
- 인성·정보통신윤리·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청소년위원회 협조)
 - 교육부, 교육청, 청소년위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및 인력풀 활용
 - 관련 교과를 통한 폭력·흡연·안전교육 등 청소년 보호교육 강화
- 상담실 설치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교사-학생 결연 지도 등 교사의 상담활동 활성화
- 교원·학부모·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교내 순시 강화
 - 교내 취약지구 CCTV 설치 방안 검토
- 학교생활 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및 준수로 인권·책임·자율 중시 학교문화 풍토 조성

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청소년위원회 소관)

- 지역사회내 폭력예방 협력망 구축·운영
 - 교육청·상담기관·의료기관·학교·경찰·사회복지사 등 연계 - 정보교류 및 공유, 지도방안 협의
 - ※ 전문상담교사(308명) ⇨ 청소년상담원(146개) ⇨ 지역사회복지관 ⇨ 시민단체(NGO) ⇨ 상담자원봉사 단체 연계 운영
-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폭력, 가출, 성매매 등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후 보호조치
 - 피해 청소년 무료법률 지원 확대(변호사 38명)
- YP(Youth Patrol) 시범학교 운영('05, 50개교)
 -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학습용 프로그램
 -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과제활동(Youth Projecting), 청소년순찰(Youth Patrolling), 청소년권리(Youth Powering) 포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적극 활용
 - 시민단체 263개, 학교 138개 단체 운영 중

- 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운동 추진
 - NGO-지역사회관계기관 공동으로 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경찰청 소관)

- 학교폭력 미화·선동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추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심의 요청
- 학교폭력 신고·지원 「One-Stop 시스템」 구축
 - 신고기간 중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182. 117 등)
 - 경찰병원 '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 담당 또는 여경을 「피해학생 서포터」로 지정, 상담을 실시하고, 1년간 리콜 서비스
- 「학교 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
 - 교육기관과 '경찰활동도 선도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산
 - '05.3.25 전국 교육감 조찬간담회에 경찰청장이 방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검거활동은 교권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설명
 - 서장·학교장·학생·학부모 등 경찰서별 협의체 구성(즉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유기적 대처 필요성 강조
 - 초·중·고교생 대상 「설문조사」(3월중) 결과, 치안대책에 반영
 - ※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정도 및 폭력 수단·방법 확인
- 5.1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 예정

□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 각 지방청별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민·관합동공청회」를 개최, 실질적 학교폭력 근절방안 모색(4월)
-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홍보물을 제작·활용
- 전직 경찰관 또는 교사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내순찰·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스쿨 폴리스」제도 시범운영(5월)
- 학교폭력 예방·피해극복 「사례공모 및 사례집」 발간(5월)

참고자료 4

마음놓고 학교 가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005. 12. 3

경 찰 청
(여성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1. 추진배경

-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이며 그 동량을 키워내는 산실이 바로 학교임
- 우리나라처럼 물적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만이 세계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최근 집단따돌림의 고통에 1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하는가 하면 어른들도 섬뜩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폭력서클을 중심으로 더욱 집단화, 흉포화(밀양 성폭력등)되어 사회문제화
-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학생이 신고 기피, 암수범죄화
 - ※ 일진회 등 폭력서클이 조직화될수록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 증가
- 특히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집단 왕따 동영상 파문은 해당 교장선생님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음
-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4일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부 등 4개 정부부처와 합동,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은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교권 확립을 지원」 하려는 것임

2. 학교폭력대책 관련 여론

■ 학부모·시민단체·언론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촉구

※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과 실행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만 해명하는데 분개하고 있음

■ 교육계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지적

● 일선 교사들은 '제자를 어떻게 신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개입에 따른 교사 업무영역과 학습권 침해 등을 걱정

● 학교장들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교육청의 학교평가나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시, 학교폭력 발생은 감점요소로 작용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학교 자체적 해결이나 무마를 선호하는 경향

※ 중학교 교장은 고교 교장으로, 강북지역 교장은 강남지역 교장으로 전보되는 것을 영전으로 여기는데, 학교폭력이 있어 감점되면 장애요소로 작용

● 경찰과 상의하려 해도, 제자를 처벌받게 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학부모 비난 우려

●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학교로 낙인찍혀 입학생이 감소하고 교육청의 각종 지원에서도 불이익

● 적극적 학생지도 과정에서 약간의 체벌만 있어도 부모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져 학생지도 및 교권 위축

3. 추진 상황

● 학교폭력 근절이 참여정부 민생안정 정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종합치안대책」을 지속 추진

● 교육당국의 교권 확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거·처벌'보다는 '예방·선도'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지난 3.4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4.30限)

● 3.19 현재 97건의 신고를 접수, 가해자 불량서클 가입 여부 등 조사중(가해자351명, 피해자 328명, 자진신고93명 / 상담 2,369건)

※ 현재 자진신고된 건 중 일진회 등 폭력서클 6개 해체

● 자진신고 학생은 가능한 불입건 조치(대검과 협의 완료)

※ 자진신고 학생 또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서, ①동종전과(보호처분)가 없고 ②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3주 이하이며 ③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 부모·교사·친구가 신고한 경우도 자진신고로 인정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적극 불입건

● 피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담당 또는 여경을 「피해학생 서포터」로 지정, 상담을 실시하고, 1년간 리콜 서비스

※ 경찰관 및 청소년 NGO와 1:1 결연, 3개월간은 주1회, 3개월이후 월 1회

- 명예경찰 소년단(중·고교2,523개교 1만2천여명)과 1:1 결연 등

● 「학교폭력 신고·지원 One-Stop 시스템」 구축, 자진신고 유도

- 신고기간 중 경찰청내 182(미아찾기)·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전화) 전화를 활용, NGO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센터」 운용

※ 한국청소년상담원, 범죄심리학회 협조, 전문가 합동 근무 중

- 경찰병원 '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학교폭력 미화·선동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추진

- 3.19현재, 140개의 학교폭력 관련 커뮤니티 中 우선 27개 커뮤니티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심의 요청

※ 강해지고 싶다(회원수 56,718명), 불새과와 함께 합주나(20,031명), 싸움잘하는 법(17,751명), 전국싸움꾼연합회(8,217명), 서울연합(2,829명), 전국일진연합(2,368명) 등

※ 서비스 업체에서 29개 자진 폐쇄(3.11), 경찰청에서 사안 경미한 84개, 각 지방청에서 173개 사이트 지속 관찰 중

- 사이버 수사대에서 중요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착수 방침이나, 아직까지 수사 가치 있는 커뮤니티는 발견되지 않음

※ 폐쇄 사이트도 접속 기록 등 보존조치 협조 요청

■ 「학교 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

- 교육기관과 처벌보다는 선도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형성 필요

- 서장·학교장·학생·학부모 등 「경찰서별 협의체」 구성,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유기적 대처 필요

- 「범죄예방교실」 내실화

※ 각 학교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전문강사 양성 및 시청각 교재 제작·배부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 초·중·고교생 대상 「설문조사」(3월중), 결과는 치안대책에 반영

※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정도 및 폭력 수단·방법 확인

- EBS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인기 연예인을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3.8)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

※ 비(가수), 김제동(전문MC), 임은경(영화배우) 선정, 캠페인 등 참여 예정

4. 향후 경찰 조치계획

■ 5.1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 예정

- 폭력서클 결성, 장기간 반복적인 폭력행위 위주로 단속하되, 학생의 처벌 여부는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준하여 철저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

■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 시스템 구축

- 각 지방청별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공청회」를 개최, 실질적 학교폭력 근절방안 모색

● 학교폭력 예방 홍보 대사가 출연하는 홍보물을 제작, 활용(4월)

※ 만화 형태 화면보호기와 가해자 후회·피해자 후유증 호소 내용 CD 등

● 자진신고 학생 재비행 방지를 위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업무협약」으로 가해학생 전문상담실시 및 경찰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교실 수강 등 교육적 선도 실시

※ 3. 24 한국청소년상담원 업무협약식

※ 청소년 상담실 현황

- 청소년종합상담실(16개소) : 16개시도(광역시 이상)에 상담원 112명
- 청소년상담실(121개소) : 시,군,구 2~3명 배치 = 300여명

※ 사랑의 교실 교육 위탁 현황(04년)

- (사)한문화인성교육원 : 연 101회 , 경찰청 예산지원(9천100만원)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서울지방경찰청, 연 24회 2,310 명 실시
서울시 예산지원(1300만원)
- (사)한국BBS부산연맹 : 부산지방경찰청, 연12회, 253 명 실시
부산시 예산지원(2000만원)

● 전직 경찰관 또는 교사 中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내순찰·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 시범운영(5월)

※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 시범운영 실시 후(8월) 관련부처, NGO 등과 협의, 확대 실시 여부검토

● 학교폭력 예방·피해극복 「사례공모 및 사례집 발간」(5월)

5. 학교·경찰의 협조강화 방안

■ 언론홍보·사회 여론화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

● 최근 경찰의 언론 홍보·사회여론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학교와 교육당국, 단속 경찰간에 갈등관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도

※ TV 등 영상매체는 선정적인 학교폭력 장면을 보여주고 신문도 통계수치·피해자 인터뷰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학교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

●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은 물론 경찰에게도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어 오히려 협조 분위기가 악화될 우려

●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시 교육부·교육청·학교와 사전 교감하여 교직의 품위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지시함

- 교육당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 요망

※ 3. 15 열린우리당 주최 학교폭력 간담회시 이인영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학교 내 후미진 사각지대에 CC-TV설치 검토를 요청

※ 전북도교육청에 인성주치의(Edu-Doctor)제도

전·현직 교원 50명과 전·현직 경찰50명, 청소년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전문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등 200명을 인성 주치의로 위촉,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전담 책임 상담치료

※ 광주시교육청은 퇴직교원 중 범죄예방자격증(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은 경우 주어짐)을 소지한 자를 선정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에 활용 예정

-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교권확립'을 지원하고 비행학생을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일선 교사들에게까지 전달

-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로 불량서클을 자진신고, 해체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검토

- 경찰활동 평가시 처벌보다 선도·예방 실적에 가중치 부여

-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 실태파악·대처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평가가 '발생시 감점 방식'에서 '선도시 가점항목化'로 전환 필요

※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시 교사 등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 ⇒ 암수범죄화된 학교폭력이 공론화되는 계기로 작용 기대

< 주요 자진신고 사례 >

● 학교와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 일진회 회원 21명 자진신고 유도 (학교신고)

관내 학교 상대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중 00여자중학교내에 폭력서클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학교장 및 지도교사 등과 5차례 긴밀히 협의, 자진신고기간의 취지를 설명,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일진회 회원 21명의 자진신고를 유도한 것임 (강원, 춘천) ⇒ 유공자 경위 특진(강원청 여경기동수사대)

● 경찰관의 학교출강 강의를 듣고 심경 변화로 경찰서 방문, 자진신고 (본인신고)

05. 3. 11 생활안전과장이 관내 학교를 방문, 자진신고기간에는 처벌되지 않고 불입건되는 등 선처된다는 강의내용을 듣고 서클단원 16명이 협의, 먼저 2명이 경찰

서를 방문, 자진신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여중생들로 03년 2월경 0000이라는 연합서클을 만들어 속칭'신고식', '날잡힌 날' 등에 후배들을 수 차례 폭행하였음(강원, 속초)

●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담화문 발표를 보고 부모가 자진신고(부모신고)

여중 1년 '때가리 00 91'이라는 불량서클에 가입, 서클의 2학년 선배로부터 지속적으로 갈취 및 집단폭행을 당해 오던 중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후배선발 및 금품을 갈취해오라는 협박 때문에 탈퇴를 결심, 부모와 상의, 고민하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담화문을 시청하고 같은 학년 회원인 친구의 부모와 연락, 회원 6명 모두 부모와 동행, 자진신고한 것임(대전, 둔산)

■ 경찰관 학교출입시 교권 확립에 유의토록 특별 지시

- 학교 출입시 지켜야 할 에티켓·유의사항을 세세히 교양하고 선생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하여
- 경찰과 학교가 서로 협조해야겠다는 분위기 조성

■ 학생 스스로의 주체적 학교폭력 대응을 적극 유도

- 학교폭력의 실상을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학생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의 주인공임을 교육
 - 학생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자체 학교폭력 근절운동'을 유도하고 고학년-저학년 형제·자매 결연으로 피해상담 제도화
- ※ 충남교육청의 경우 3. 23일 「학생명예 선서식」 개최 자정결의를 함

■ 그동안 신고접수된 사건을 분석하여 본바(3.4~3.15)

- 피해장소가 주로 통학로등 노상에서 피해(41.9%)를 당하고 교내에서도 23.3%가

금품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내 화장실내, 후미진 곳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

구 분	총 계	피 해 장 소				
		교내	오락실, PC방	통학로, 노상	집	기타
계	129	30	30	54	8	7
비율	100(%)	23.3	23.3	41.9	6.2	5.4

- 피해시간대는 54.2%가 13시에서 17시 사이 하교시간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시부터 21시 사이에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교시간, 통학로 주변 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필요

구 분	총 계	피 해 시 간			
		09시-13시	13시-17시	17시-21시	21시 이후
계	129	3	70	47	9
비율	100(%)	2.3	54.2	36.4	7.0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면식유무를 보면 피해학생의 69.7%가 면식이 있으며 면식자 중에서도 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67.7%)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생활지도에 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구 분	계	면 식 유 무			
		면식없음	면 식 있 음		
			계	동교	타교
계	129	39	90	61	29
비율	100	30.2	69.7	67.7	32.2

- 피해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19.4%에 이르고 있음

⇒ 학부모, 교사 등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구 분	계	피 해 기 간	
		6월 이하	6개월이상
계	129	104	25
비율	100	80.6	19.4

참고자료 5

최근 일진회 해체자료

2005. 12. 3

(경 찰 청)

□ 청주·인천지역 중학교 불량서클 자진신고, 탈퇴 및 서클 해체 (충북청, 인천청)

청주 15개 중학교 245명, 인천 25개교 중학교 137명으로 구성된 소위 잘 나가는 학생 등이 연합, 학생들을 괴롭힌 불량서클(일명 일진회)적발, 자진신고 유도·해체

■ 청주지역 자진신고, 일진회 서클 해체 및 탈퇴 내용

● 명 칭

- 자 칭 : 「일진」 「짱모임」 「노는 모임」 등으로 호칭

- 타 칭 : 「일진회」

※ 피해학생이나 주변 학생들 일진회로 호칭, 회원들 중에서도 「일진회」라고 부르기도 하며 「잘 나가는 모임」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음

● 인 원 : 청주시 중학교 15개교 245명 (남 197, 여 48)

● 모집방법

학년초 신입생 입학 시, 공부·싸움·운동 등을 잘하는 후배를 지목, 설득·협박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입회케 함

● 활동지역 : 각 학교 교내 및 시내, 공원지역, 오락실, 노래방 등

● 주요 활동 내용

- 중학교별 일진회 학생들간의 세력다툼을 위하여 패싸움

- 사소한 시비를 통한 학생들간의 일대일 맞짱 싸움을 통해 서열 결정

※ 남녀 공학인 학교 선배 또는 여학생이 후배 남학생 빠따치기

- 표강매, 앵벌이, 뽕뜯기, 투투비 등으로 금품 갈취

- ▷ 표강매 : 유명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를 뜯어서 1매당 2,000원~5,000원 씩 강매
- ▷ 앵벌이 : 서열 낮은 회원에게 지나가는 할머니, 노약자 등에게 구걸토록 함
- ▷ 뽕뜯기 : 선량한 학생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 명목상 빌림
- ▷ 투투비 : 이성친구를 만난지 22일째 되는 날을 기념으로 징수, 선배 상납

- 인터넷 다모임을 통한 연락으로 각 학교짱 들끼리 장소 시간 등을 선정, 주1회 20~40명이 만나 공원, 놀이터 등에서 음주, 흡연 후 위력과시
- '04년 여름방학기간 중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서 각 학교짱 6개교 15명 청주연합대회를 개최 (친선도모)

● 자진신고 및 일진회 해체 경위

- 청주지역 중학교 각 학교별로 불량서클 모임을 결성 활동한다는 첩보 입수
- 각 학교별로 수 차례에 걸쳐 가담학생들을 만나 처벌하지 않고 선처한다고 약속 후, 명단 입수
- 각 학교별로 학교장·교사 설득, 수차례 협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학생 전원 불입건 처리
 - ※ 자진신고 학생 전원 서클 탈퇴서 제출 및 선도조치 이수 동의

● 학교·학부모·학생 반응

- 학 교

교내 불량서클 활동 일부 알았지만 학교의 처벌만으로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들이 입건되어 처벌될까 걱

정되었으나 금번처럼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의견

- 피해자 부모 등 학부모 반응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아이가 등교하기를 꺼려하였으나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일진회 학생들이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며 웃으면서 학교에 가는 자녀를 보고 경찰청에 감사전화 쇄도

- 잘 나가는 학생(가칭 일진회) 반응

별로 죄의식 없이 집단행동을 하였던 것 같으며 탈퇴하고 싶어도 친구들로부터 보복과 배신자라는 낙인 및 처벌이 두려워 못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앞으로 나쁜 짓을 안하면 용서해 준다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마음이 홀가분하며 앞으로 착하게 학교생활 하겠다는 반응

■ 인천지역 자진신고, 일진회 서클 해체 및 탈퇴 내용

- 명 칭 : 남학생 「일진회」, 여중생 「깡년이」 등 사용
 - ※ 깡년 : 깡죽거리다

- 인원 : 인천지역 중학교 25개교 137명 (남 61, 여76)

● 모집방법

일진회 리더가 회의 소집하여 2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 선발
 ※ 얼굴 예쁘고 싸움 잘하는 복종 잘하는 후배 선발, 일진회 1기 인원 5~10명 정도

● 주요 활동 내용

- 후배선발 할 때 신고식 개최, 후배 집단폭행
- 비상연락망 유지, 싸움 발생시 비상소집
- 금품갈취, 상납 요구 불복시 집단폭행
- '02. 7월초 인천 일진회와 부천 일진회간 패싸움 공모, 부평역 100여명 집결 (부천연합 인원부족으로 무산)
- '03. 12월중 연합일진회 대장자리를 놓고 인천연합 리더(○○군, ○○중 3년)와 부평연합 리더(○○회, ○○중 3년) 간 1:1 싸움, 인천연합 리더 승리로 현재 연합일진회 대장을 맡고 있음

● 자진신고 및 일진회 해체 경위

- 청소년성매매 단속 중 알게된 여중생으로부터 일진회 18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피해학생이 있다는 첩보 입수
- 피해학생의 중학교 방문, 학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 면담, 1주일간 설득 끝에 피해사실 및 가해학생 확인(피해학생 불벌의사)
- 가해학생 학교 협조로 자진신고 설득, 연합 일진회 파악 및 명단 확보
- 각 학교별로 학교장·교사 설득, 수차례 협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학생 전원 불입건 처리
 - ※ 자진신고 학생 전원 서클 탈퇴서 제출 및 선도조치 이수 동의

■ 향후조치 및 기대효과

- 자진신고 학생, 교육청·학교와 협조 교육적 선도 실시, 경찰청 운영 사랑의 교실 수강 및 문광부 산하 청소년상담원 등을 통한

전문상담 실시, 지속 선도·관리

※ 「사랑의 교실」 리콜서비스제 : 교육 이수자에 대해 1년간 이메일, 전화 등 (월1회 이상) 지속적인 관리로 재비행을 방지하고 가족·교사와 연계한 선도활동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조 (3. 24 협약예정), 청소년상담실에서 무료 상담 실시
 - 청소년종합상담실(16개소, 112명) : 16개 시도(광역시 이상) 설치
 - 청소년상담실 (121개소 300여명) : 시·군·구 지자체별로 설치

- 피해학생 서포터 지정 신변보호 등 지원 및 상담치료 실시
- 지역 연합 일진회 동시 와해로 향후 재구성이 어렵고 학기 초 신입생 등 피해 차단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신고 현황 (3. 4~3. 21)

구분	자진신고	피해신고		상담
건수	77	128		2,873
인원	자진신고 학생	피해학생	가해학생	
	608	370	528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을 통해 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원폭력 해소방안과 관련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생폭력에 연루된 학생 1천여명을 특별관리하면서 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학생폭력사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자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목표로 '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크기 훈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찰과 관계자는 "병영체험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의 실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은 2~3일 동안 이뤄지고 내용도 특수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문제학생 교화프로그램이 많을텐데 하필이면 병영체험 같은 군사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로 청소년 중에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이다. jhcho@yna.co.kr

참고자료 6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연혁

2005. 12. 3

최 기 호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

비영리민간단체 전라북도 등록 300호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도지부 연혁

<http://cafe.daum.net/ckw>

○ 목적 :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협의회는 독서지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독서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독서지도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체제 구원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민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회 중요 연혁

- 2003. 3. 15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창립
- 2003. 10. 책사랑 발행(현 8호)
- 2004. 5. 2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전라북도 271호)
- 2004. 8. 9~11 제1회 자연과 함께 하는 독서캠프 공동 주관
- 2004. 9월호 월간잡지 꼬망세 실림
- 2004. 9. 주말과학독서교실 교사 7명 협력 참가
- 2004. 현재 아름다운 독서지도사 문화마을 카페 운영 회원1,900명
- 2004. 8. 독서지도사 남원지회 출범
- 2004. 9. 10~11 남원도서교환장터 주관
- 2004. 9. 독서지도사 익산지회 출범
- 2004. 9. 17~18 온고을 도서교환장터 협력
- 2004. 9. 24~25 익산도서교환장터 공동 주관
- 2004. 10. 독서지도사 군산지회 출범
- 2004. 10. 22~23 군산도서교환장터 주관
- 2004. 11. 29 독서지도사 전주지회 출범
- 2004. 12월 17~18 서정주시인 문학기행예정(강한 전북일등도민 지원)

- 전북도지부장 : 최 기 호 ○ 초대사무국장 : 최은형
○ 2대 사무국장 : 김복건

◆ 전주지회

- 사 무 실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BYC 뒤 클애들교육서점 내
- 전 화 : 277-8050~3 • 회원수 : 82명
- 회 장 : 장미라
- 부 회 장 : 박경옥, 이애란
- 감 사 : 박희진, 문 희
- 사무국장 : 황인영
- 교육국장 : 홍미애
- 홍보국장 : 문순동
- 봉사국장 : 이복순

◆ 남원지회

- 사 무 실 : 남원시 동충동 305-1 책사랑글사랑 한알음문고내
- 전 화 : 633-4216, 011-656-4216 • 회원수 : 33명
- 회 장 : 양경님
- 부 회 장 : 최순자
- 사무국장 : 고광자
- 감 사 : 설점옥

◆ 군산지회

- 사 무 실 : 군산시 신평동 970 꿈꾸는문고 내
- 전 화 : 463-0927, 018-401-7678 • 회원수 : 25명
- 회 장 : 김승용
- 부 회 장 : 최옥순
- 사무국장 : 고은정
- 회 계 : 박성희

◆ 익산지회

- 사무실 : 익산시 영등동 256-1 동아어린이도서관내
- 전 화 : 018-642-8105 • 회원수 : 35명
- 회 장 : 황미라
- 부 회 장 : 이미정, 이미순
- 사무국장 : 박미자
- 감 사 : 김오남, 조은자

■ 토론회 자료집 ■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발행처 :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12-6번지 우미아파트 101동 1910호
 발행인 : 최 기 호 도지부장
 편집인 : 김 복 건 사무국장
 발행일 : 2005년 12월 3일
 연락처 : (063) 902-9575 팩스 (063) 902-9575
 이메일 : 6703358@hanmail.net